

# 설 대목인데 강대강 치닫는 택배파업... 노사 '평행선'

CJ대한통운 vs 노조 '줄다리기' 택배노조, 파업 4주차 접어들어 이재현 회장 자택서 집회 열기도 대리점연합, 파업철회 복귀 요청 사측 "명분없는 파업 중단을"

택배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택배가 설 대목을 맞고 있지만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간 줄다리기가 오히려 더 팽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 48.6%로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로 23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택배노조를 향해 "조건 없는 파업 및 태업을 중지하고 즉시 현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측은 성명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상품을 불모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택배노조가 수많은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택배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상품을 불모로 한 명분 없는 투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연합회측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원들과 택배 기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속 택배기사들에게 이번 성명서를 공개하고 36시간 만에 전체 택배기사 2만여명 가운데 1만2573명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노조엔 쟁의권 있는 소속 택배기사 1650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수 년간 피땀으로 일궈놓은 택배현장을 소수의 택배노조가 망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의 택배 서비스는 소수의 집단행동에 멈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J대한통운과 정부에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CJ대한통운은 서비스 차질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 대다수의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고, 택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며 "정부는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택배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파업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현업으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에서 "명분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택배 배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사회 인프라이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성장한 택배가 차질을 빚으면서 코로나19 극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택배)노동조합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작업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는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배송차질에 대해 국민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 ▲사회적 합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 ▲업계 최고의 소득, 최상의 작업환경 유지와 지속적인 투자 등 택배산업 선진화 선도 ▲택배 현장의 합리적 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 ▲대리점연합회의 노조간 원만한 대화 지원 등도 약속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입장문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타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170원 택배요금 인상분 전액을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표준계약서 원안대로 택배노동자와 계약하려 했다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은 CJ대한통운과 사회적합의 이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여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택배노조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서울 장충동에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설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택배노조가 대화를 제안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고, 이런 결정에는 이재현 회장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라고 전하면서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소진공

### 반부패·청렴 우수기관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반부패·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했다.

19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에 공직유관단체Ⅲ유형(임직원 500명~999명) 그룹에서 평가를 받아 전년도보다 1등급이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취득 종합 점수의 경우 동일 그룹, 같은 등급 군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소진공은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유산, 부패취약분야 청렴교육 등을 실시해 임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소진공은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윤리상품권 운영 및 폐기 방식을 바꿔 유기증권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부분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승호 기자



## KCC클라스

###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발표

KCC클라스가 자사의 인테리어 전문 라인몰인 '홈씨몰'이 주최한 '제1회 홈씨씨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7점을 선정, 발표했다.

19일 KCC클라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고 향후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도와 인테리어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 수상작에는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나머지 수상작에도 각각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대상의 영예는 작품명 '온재(溫在): 온기가 존재하는 삶의 공간(사진)'을 출품한 명지대학교 황민근 학생에게 돌아갔다. /김승호 기자

# 중기중앙회, 대전시와 중소기업 지원 '협력'

## 허태정 시장 초청 정책 간담회 애로해소 위한 12건 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허태정 대전광역시시장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오후 대전 호텔 ICC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시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대전시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대전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허태정 대전광역시시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대전시 소속 17개 공공기관도 참여하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허 대전시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창현 대전

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대전세종충남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조재연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이명렬 대전지방조달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협동조합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대전시 협동조합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확대 ▲대전시 공예품 판로 지원 및 공예 클러스터 조성 ▲지역 중소기업 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등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를 위한 12건의 과제들이 건의됐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

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 ▲대전시 '조합 추천 수의계약' 및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공동 노력 등을 내용으로 대전시와 대전시 소속 17개 공공기관, 중기중앙회 사이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협약'도 체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힘든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자리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정책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28곳 조성

내달 17일까지 신규주관기관 모집 전문랩·특화랩 등 최대 15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신규 주관기관을 모집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 창업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중기부는 2018년에 65곳을 시작으로 전국에 현재 전문랩 20곳, 일반랩 193곳 등 총 213곳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과 양산역량을 갖춘 전문랩 10곳과 제조 창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전문분야 위주의 특화랩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랩은 역대 최고 규모인 10곳으로 확대하고 장비 구입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랩 지원은 독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의 생산단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 구축, 메이커 공간과 창업지원 기

관과의 협업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화랩은 기존 일반랩은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며 금속, 목공 등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일반랩 8곳 내외는 특화랩으로 전환하고 새로 10곳을 선정해 시설, 장비 구축과 운영 비용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랩은 최소 1000㎡ 이상, 특화랩은 100㎡ 이상의 전용공간이 필요하며 전문 운용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 링크웨어

### 브이로그 짐벌캠 '스냅지' 출시

링크웨어가 휴대용 영상 장비인 브이로그 짐벌캠 'Snap-G' (스냅지·사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링크웨어가 그동안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짐벌캠 시장 첫 제품으로 누구나 손쉽게 브이로그 촬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급의 짐벌 기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았다. /김승호 기자

